

호남 유학 산실 · 중심 '훈몽재'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지문단, 훈몽재 방문... 어암관 건립 · 한국의 서원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순창군은 지난 21일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문용린 前 교육부 장관 등 다수의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지문단'이 훈몽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훈몽재 자연당에 마련된 이 자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김충호 훈몽재 산장, 이배용 이사장, 문용린 前 장관, 이경재 前 국회의원, 차인태 前 MBC 사장 등 다수의 전직 장관과 장성 등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훈몽재 어암관 건립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의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 및 정읍 무성서원과 연계한 훈몽재 교육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이 송강 정철을 비롯해 조희문, 기요간, 양자징, 변성온 등 당대 유명 학자들을 가르친 곳으로, 호남 유학의 산실이자 중심"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매년 중국 대학생과 유학생이 강학을 듣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군비 33억, 도비 7억 등 총 40억을 투입해 어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이사장은 "지난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은 하서 선생을 매개로 훈몽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훈몽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언했다.

순창군은 지난 3월에 열린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배용 이사장의 자문요건을 일부 수



지난 21일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문용린 前 교육부 장관 등 다수의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지문단'이 순창 훈몽재를 방문했다.(사진은 훈몽재 모습.)

용하여 어암관 설계에 반영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훈몽재와 필암서원을 연계한 교육시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훈몽재(訓蒙齋)는 인종 임금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 조선 중기 대학자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년) 선생이 1548년(명종 3년)에 순창 점암촌(지금의 삼치면 둔전리)

백방산 자락에 지은 강학당(講學堂)으로, 정조 임금이 친히 존립 여부를 물었을 만큼 유명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하서 선생의 후손인 김시서가 중건하였으나, 6.25때 다시 소실된 것을 순창군이 중건한 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예절 및 유학 전문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수제천 · 우리 음악 맥을 잇다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 정기연주회' 정읍 연지아트홀서 열려

지난 15일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 표현을 연주회로 한 단체가 있다.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지휘 민정기)이 그 주인공이다.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사)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가 주최하고 (사)수제천보존회가 주관,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이 후원한 제2회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 정기연주회가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됐다.

김민균(배영고 3) 학생을 비롯한 20여 명의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에 의해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반주곡 수제천(壽齋天)을 비롯해 '열불도드리', '타령', '아리랑 협주곡', 'Fly to the sky',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모티브로 한 故 황병기 이화여대 교수가 작곡한 '달하노피곰'이 연주됐다.

故 황병기 교수의 스승은 정읍 입암 출신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예능 보유자였던 김운덕 명인이다. 이날 연주된 '달하노피곰'은 KBS 국악한마당과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정읍여중 2학년이 재해 중인 홍유경 양의 17현금에 의해 재현됐다.

2018년에 창단된 청소년 수제천 연주단은 2019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기연주회를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현재 20여 명이 배우와 공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한국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등에 진학해 '수제천(壽齋天)'과 우리 음악을 맥을 이어가고 있다.

민정기, 최석근(대금), 배재현(피리), 유희영(아쟁), 김수아, 장다영(해금), 심필숙, 박은지(거문고)가 지도 교사로 활동 중이다. /정읍=김대현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노사 합의 공동 결의문 채택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1일 오응환 이사장 부임 이후 첫 노사 협의회 회의를 갖고 10개항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노사 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인 노철수 차장과 사측 대표인 오응환 이사장 등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합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발전을 위해 청렴과 공직 윤리 강화, 관행 철폐, 소통 활성화 등 새로운 태권도진흥재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철수 근로자 대표는 "태권도진흥재단 노사는 외부의 불공정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태권도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발전을 저해하거나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노사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등 신인 이사장 취임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태권도진흥재단이 인위에서 존경과 신



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 구성원 모두가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준법정신 등 공직자 윤리를 갖도록 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노와 사는 재단 발전에 있어 혼연일체가 되고, 특히 노사화합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비롯해 업무 추진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이사장을 믿고 함께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고창 문화의전당 전시실서 25일까지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전시회

고창군은 21일부터 25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사)동백서화회(회장 한재영)가 주최하는 제18회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 입상작 및 초대작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서화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접수받아 ▲대상 김경태 ▲최우수상 김중곤 ▲우수상 최영연, 조재기, 이금옥(3명) ▲특별상 최영연, 김천실, 이용근, 정필주, 이일제, 여운옥, 정인제(7명)를 선정하였고, 이중 입상작 및 초대작가 100여점을 전시한다.

공모대전의 대상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경태 씨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송령초가'를 해서체로 쓴 작품이 선정됐다.

한재영 동백서화회장은 "한국동백서화예술 공모대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이번 작품을 감상하면서 심신의 활력과 위로를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 백인의 자화상' 시민 추천 공모

전주문화재단, 원로 · 작고 예술인 재조명... 27일까지 이메일 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원로 · 작고 예술인을 재조명하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의 예술인을 선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추천을 받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전주 문화예술의 격을 드높인 예술인의 발자취를 기록, 현재까지 총 66인의 예술인을 재조명했다.

재단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0년간의 기록을 재조명하고, 향후 예술인 아카이브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아카이브전을 열어 그동안 수집된 채록 및 연구자료, 인터뷰 영상, 사진 자료 등을 한자리에 펼쳐 문화예술의 뿌리와 맥락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재단은 현재까지 기록된 66인의 자료를 재구

성할 길간데를 발행 중이다.

특히, 10년 차를 맞아 재단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주년 기념 공연에 2021년도 '전주 백인의 자화상' 공연분야 선정 예술가를 오미주 공연 형식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전주독서대전 등과 협력해 작고문인 세미나도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이 전주 문화예술의 뿌리와 명맥을 잇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 추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는 27일까지 재단 대표메일(jcf_run@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재단 문예진흥팀(070-7711-375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